

① '사전연구' 는 곧 항해, 먼 길 내다보며 승선할 인재를 기다립니다

국립국어연구원<표준국어대사전>학예연구원 조남호, 이운영 씨



국립국어연구원 어문규범부 국어사전 보완 학예연구원 조남호 씨와 이운영 씨에게는 남다른 습관이 있다. 거리에 즐비한 간판이나 광고문구에서 잘못된 단어를 발견하려고 일부러 애쓰는 것은 예사고, 신조어를 발견할 경우 얼른 메모장을 꺼내 적는 것이다. 10여 년 간 국어사전을 연구하면서 얻은 직업병(?)인 셈이다.

될 수 있으면 통신상에서도 정확한 표현을 하려고 노력한다는 두 사람은 사전에 관한 한 남달리 깊은 애정과 철학을 갖고 있다. 대사전은 물론 중사전, 소사전, 반의어 사전 등 분야별 사전을 연구할 날을 기다리는 그들의 사전 이야기는 《표준국어대사전》에서부터 시작되는데 이유는 이 사전이 근무기간 10여 년 중 8년을 투자해 낚은 대어大漁이기 때문이다.

“준비하는 과정에서 우여곡절도 많았지요. 하루 이틀에 될 일이면 좋겠지만 몇 년에 걸쳐 완성되는 일이니 이 일에 꾸준히 참여하려는 인력이 많지 않습니다. 저와 이운영 연구원이라 중심축이니까 계속 일을 잡고 있지만 사전편찬 기획 후 나머지 세부과정들을 진행할 중간 인력이 일하던 중에 빠져나가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때가 가장 난감하지요.”

이들이 완성한 《표준국어대사전》은 말 그대로 ‘대사전’이다. 1992년에 시작해 1999년에 완성했으니 소요된 시간만 해도 8년, 동원된 인력만도 연인원 300여 명에 달한다. 대규모였던 만큼 50만 단어라는 적지 않은 단어를 수록하면서 7,300여 쪽으로 이루어진 국내 최대분량의 사전으로 탄생해 세간의 주목을 받았다. “국가에서 약 100억 원을 투자해 완성했다는데 왜 이렇게 오류가 많냐?”는 소리도 들었지만 조씨는 중간에 출간예정일이 변

경되거나 손을 떼는 사람들이 생기는 예기치 못한 일을 겪으면서도 정확한 사전을 만들고자 열을 올렸으며 진행과정을 조목조목 설명한다.

본래 《표준국어대사전》은 기존에 나왔던 모든 사전의 수록 단어를 검토하면서 필요한 단어를 가능한 한 모두 수록하는 취지로 기획됐다. 기획 후 연구원들이 시작한 일은 기존에 출간된 6권의 사전을 꼼꼼히 검토하는 일. 물론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검토 후 풀어야 할 문제들이 더 많았다. 수집된 자료들은 그대로 수록되지 않고 내부기준에 따라 확대심의와 심층설명을 곁들이는 과정을 거쳤다. 이 과정에서 꽤 긴 시간이 소요되는데 여러 연구원들이 각자 제 몫을 다해 주어야 하기에 더욱 어려운 과정이었다. 여기에도 6개 사전에 수록된 단어를 정리하는 중 생겨난 신조어를 조사, 정리하는 숙제도 더해졌다. 이씨는 “여기까지가 연구원들의 몫이라면 다음 일은 표제어 기준결정 위원회의 몫”이라며 수록할 표제어를 결정하는 과정들을 소개했다.

“표제어 기준결정 과정에서 의견이 분분하지요. 같은 신조어라도 사람마다 그 단어를 보는 기준이 다르잖습니까. 가령 어르신들이 “이 단어는 꼭 사전에 수록되어야 한다”고 말씀하시면, 젊은분들은 “그 단어가 왜 들어가야 하나”고 반대하지요. 이 과정에서 시간이 많이 소요됩니다. 그만큼 사전편찬 시 관건이 되는 과정이라 볼 수 있지요. 물론 저희들에게 남은 숙제는 또 있습니다. 위원회가 단어를 결정하면 연구원들은 결정된 단어의 쓰임을 확인하고 풀이합니다. 그리고 배열을 한 후 글을 완성하고 계속해서 교정을 보게 됩니다.”

처음 구상 시 두 연구원의 머릿속에 그려진 사전은 옥스퍼드 대사전처럼 특정 단어의 역사부터 꼼꼼하게 살피는 사전이었다. 결과적으로 그 그림을 똑같이 완성하진 못했지만 《표준국어대사전》은 나름의 고유색을 획득하는 데 성공했다. ‘표준’이라는 이름에서도 볼 수 있듯이 현재 표준어 규범에 맞게 편찬한 시도도 보이고 ‘대사전’으로 불리는 만큼 전문어, 방언 등이 상당수 포함돼 있다는 게 강점이었다. 또 남북한 통일에 대비하자는 의미에서 북한어 7만 단어를 포함시킨 것도 특색 중 하나였다. 현재까지 출간된 국내 사전 중 규모 면에서나 완성도 면에서 좋은 평가를 받고 있기 때문에 국립국어연구원 홈페이지를 통해 의

견을 제시하거나 문의를 해오는 사람도 꽤 보인다.

“저희도 누가 사전에 관심을 가질까 생각했었는데 의외로 지속적인 관심을 갖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소소한 오자를 알려주기도 하고, 빠진 단어를 추가해 달라고 요청하는 분들도 계시지요. 전체 국민수에 대비해 보면 지극히 소수이지만 이런 분들의 꾸준한 관심과 도움이 있어서 의욕이 생깁니다.”

두 사람은 현재 정오표를 만드는 데 몰두하고 있다.

이 엄청난 분량의 사전을 꼼꼼히 읽는 독자가 있다고 생각하니 의욕도 생겼고, 문제점을 보완하고 지금 현실에 맞는 부분을 추가해야겠다는 책임감도 들었다. 물론 종이사전을 보완하면서 종이사전이 사라질 위기상황을 걱정스럽게 바라보는 마음도 있다. 이 위기를 내다보고 만든 게 2001년에 완성한 《표준국어대사전》 CD-ROM 이다. 총 7만 3,280쪽의 분량에 50만여 단어와 1만여 점의 컬러삽화를 담고 있으며 종이사전이 갖추지 못한 강력한 검색기능을 구비했다는 강점을 갖고 있는 이 사전은 표제어 검색 와일드카드wild card 기능을 채용, 음절 단위로 된 단어 중 특정 음절을 포함한 단어를 모두 검색하도록 만들어졌다. 또 특정 단어가 사용된 속담을 찾아내는 기능까지 갖추면서 전자사전의 다양한 가능성을 보여줬다.

조씨는 “사전출판시장이 위축된 것은 그만큼 독자수요가 없기 때문”이라고 말한다. 근본적으로 사전에 대한 일반인들의 관심이 부족하고 투자도 적은 게 문제라는 것이다.

“일본에는 사전전문 프리랜서 저자가 있습니다. 전문 인력이 부족한 우리 상황과는 전혀 다르지요. 우리나라는 집필에 동원된 인력들 중 중간에 손을 놓는 인원이 무척 많거든요. 그런 점에서 결과물에 실수가 따를 수밖에 없지요. 인력도 부족한 데



다 수요가 적으니 출판사들이 투자를 할 생각도 안하고, 국가에서 자본을 대고 만든다 해도 달려들지 않는 겁니다.”

종이사전 수요가 급감한 이후 일본출판계에서는 종이사전 홍보를 적극적으로 시도하고 있다. 위축된 사전출판시장의 활성화를 위해서 우리도 그런 노력이 필요하다. 그렇지만 이는 비단 종이사전만의 위기가 아니다. 일반 단행본도 잘 팔리지 않는 판국이니 '사전'의 위기가 아니라 '종이책' 전체의 위기라고 설명해야 옳다.

“실제 종이사전으로 나오면 좋겠지만 그렇지 않더라도 저희들은 정확하고 충실한 콘텐츠에 대한 고민을 늘 해야 합니다. 어떤 그릇에 담게 되든 양질의 정보를 충실하게 담아내는 게 저희의 임무거든요. 앞으로 끈기와 열정이 있는 연구 지원자들이 달려들었으면 합니다. 장기적으로 볼 때 이런 인력들이 있어야 사전출판이 발전할 겁니다.”

두 사람은 사전이 '책' 이상의 의미를 갖는다고 말한다. 국가의 문화적 자존심이며, 문화적 성취를 뚜렷하게 보여주는 근거가 된다는 말이다. 그렇게 문화적 자존심을 책임지는 완전한 사전을 만들자는 사명 아래 연구원들은 메모장에 새 단어를 추가하고, 잘못 쓰인 어휘를 바로잡으며 부지런을 떤다. 이제 보니 '사전'을 향한 열정이 낡은 양승람첩이다. **☞**

취재 김청연 기자 · 사진 박신우 기자

